

海外勤務 企業體에 對한 테러 防止策

- 最近 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中心으로 -

최 운 수*

◇ 목 차 ◇

-
- I. 序 論
 - II. 小數民族分離主義 運動
 - III. 海外 企業體 및 我國人에 對한 테러 實態
 - IV. 테러防止 對策
 - V. 結 論
- ABSTRACT
-

I. 序 論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比例하여 한국기업은 海外에 많은 工場設立과 自社要員을 파견 주재시켜 타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 요인도 산재해 있다. 특히 한국기업을 대상으로한 테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서냉전 종식 이후 「테러

* 關東大學校 警察行政學科 教授, 法學博士

1) 한국 기업은 94年 6月末 現在 全世界 65個國에 總 3,374件에 63億 5千 萬弗을 投資하고 있다.
(대한무역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무공자료 94-58, pp. 1994.)

의 종말」이 오는 듯 하였으나 소수민족의 분규, 종교적 갈등등 세계도처에서는 「테러리즘」이 끊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에 진출한 韓國通信事務室과 宿所에 스리랑카 分離獨立團體인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소속 게릴라 2명이 수류탄 2발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²⁾

스리랑카 타밀반군의 한국통신 현지사무실에 폭탄 공격을 가한 것은 우회적인 대정부 압력 수단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전략은 물론 이집트 알제리 등지의 아랍권 반정부 단체 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타밀反軍은 이 전략으로 스리랑카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킴으로서 스리랑카가 결코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외에 천명, 스리랑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타밀반군은 최근 「스리랑카 정부와 경제 협력을 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를 적으로 간주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실제 스리랑카 주재 외국 기업체를 상대로 테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은 제 2의 對스리랑카 투자국인 만큼 반군에게는 가장 중요한 테러 대상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1978년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대 스리랑카 투자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113건에 1억 7800만달러에 이르고 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만도 삼성물산과 주(대우), 효성물산 등 76개업체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특히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스리랑카 대통령이 4일간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투자를 호소하고 돌아간 직후 발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더욱 확연해진다.

外國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의 이익 추구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아래 사전에 완벽한 테러 대책에 관한 의식 고취와 함께 정부와 기업은 분쟁지역에는 가급적 투자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 문제시 되고 있는 소속 민족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우리 기업들간의 안전 정보에 대한 상호교류, 위급상황시 상호연결, 요원에 대한 교육 등 자위책을 마련하여야 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해외근무 기업체에 대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기초로하여 최근 사태를 계기로 보도되고 알려진 인터넷상의 一次자료를 활용하였다.

2) 東亞日報, 1996. 8. 19일자.

Ⅱ. 小數民族分離主義 運動

1. 小數民族分離主義 運動과 테러리즘과의 關係

정치 폭력으로서의 테러리즘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의 주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대중에게 위협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국에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수 민족 주의자들은 그들 민족의 자치권확대 또는 해방을 위하여 테러리즘을 이용하여 그들의 민족 문제를 국제여론화 하여 정치 문제화를 기도하고 있다.³⁾

또한, 소수민족분리주의는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등의 정치 이념보다 민족의 충성심에 바탕을 두고 혈통, 영토, 관습, 전통, 종교 등 민족의 同質性에 親和力을 가지고 現體制로부터 分離 또는 獨立을 최종목표에 두고 있다.

2. 主要 運動 事例

가. 中東의 少數民族主義 運動⁴⁾

최근 이라크 사태로 나라 없는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비극이 국제무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 모로코에 이르는 중동지역에는 「나라없는 설움」을 당하고 있는 또다른 소수민족이 약 5,000만명에 이른다. 이중 대표적인 종족은 알제리와 모로코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족 1천5백만, 이집트의 1천만 콕트족, 레반논의 1백30만 마로니트족, 시리아의 1백70만 알라위트족들이다. 이들은 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기엔 충분할 만큼의 세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민족자결이란 꿈을 달성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워낙 숫자가 적어 알라의 이름으로 뭉친 2억명에 달하는 아랍 이슬람교도들의 틈바구니에서 독립국을 창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와 관련해선 결사적인 반목도 불사하는 아랍국이지만 민족과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 억압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사태에서 지역국가들이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 진압을 「이라크 국내문제」라며 암묵적 지지를 보낸 것도 쿠르드족 독립운동 여파가

3) 洪涼男,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과 국제 테러리즘 전략” 「對테러연구Ⅶ」, 치안본부 1990. 6, pp. 51- 370.

4) 중앙일보, 「중동의 소수민족」 1996. 10. 9일자.

자국내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중동의 소수민족 현황

소수민족	마로니트족	알라위트족	콕 트 족	수단크리스천	베르베르족	쿠르드족
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남부 수단	알제리와 모로코 산악지대	터키, 이란, 이라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구	1백 30만명	1백 70만명	1천만명	1백 30만명	1천 5백만명	2천1백만명
상황	점차 쇠락	국정참여	기독교, 핍박	북부이슬람교도와 내전중	이슬람, 자치추구	독립국가 추구, 국제분쟁 휘말림

출처 : 중앙일보, 1996년 10월 9일자

나. 舊蘇聯聯邦內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

소련은 126개의 대소민족으로 구성되었고 15개의 공화국으로 연방을 이루고 있다.

1979년을 기점으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으로 동국권과 소련내에서 민주화운동을 촉진시켰고 이로 인하여 자치권 확대 요구라는 정치 문제를 테러리즘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의 체첸사태도 그 일환이다. 구소련내의 소수 민족문제는 이슬람 국가들과의 정치변수가 되고 있으며, 소수민족분리주의자들은 분리주의 운동을 정치적 폭력수단인 테러리즘을 수단화하고 있고, 같은 Arab 문화권은 새로운 테러리즘의 보호막 역할이 되고 있다.

다. 中東의 PLO 民族解放運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숙적관계는 1997년 오슬로 평화협정⁵⁾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관계가 대립이 아닌 공존의 시대가 출범하였으나, 팔레스타인측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체결된 협정이 불공평하다는 내부불만이 높았고, 또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내의 분열로써 이스라엘에 맞서 무장 봉기를 처음 시작한 측은 서안과 가자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이 었지만 협정을 맺고 현재 통치를 맡고 있는 측은 아라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PLO의 외부세력들로써 내부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서안과

5) 동아일보 '96. 4. 27자.

가자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평화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⁶⁾

라. 아일랜드 민족분리주의 운동⁷⁾

1910년대에 아일랜드의 구 교도가 북아일랜드의 분리를 요구, 최초로 아일랜드 공화군(I.R.A)을 조직한 후 1921년 아일랜드 자유국을 탄생시킨 앵글로-아이리쉬조약(북아일랜드를 영국에 귀속)체결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6개군의 인구 160만명중에는 영국계 신교도가 51%로 아일랜드계 구교도 42%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지방에 처음 영국인 신교도들이 정착한 것은 1620년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 영국인 신교도(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미국을 그들의 고국으로 생각하듯 북아일랜드 신교도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남쪽의 구교도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합시 이번에는 자신들이 소수파가 되어 350만 구교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통합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구교도 민족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아일랜드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에 뿌리를 둔 신교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로 파악한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신교도들과 전체 영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4세기전 영국인 신교도들이 어스터(북아일랜드)지방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침탈하고 경제독점 및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배 연속관계를 영구화시키려 기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 신. 구교도간의 갈등은 단순히 지역사회 내부의 알력과 마찰에 의해 생성된 문제라기 보다 본질적으로는 민족문제라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마. 구 유고슬라비아 민족주의 운동⁸⁾

동유럽 공산권 몰락이후 민족주의 조류에 따라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유고연방으로부

6) '95. 9월 워싱턴에서 조인된 오슬로Ⅱ협정(일명 타바협정)의 경우 요르단강 서안 지구중 7%만 팔레스타인들의 직접 통치를 허용하고 있고, 24%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공동통치, 나머지 69%는 통치를 허용치 않고 있다.

7) 국가안전 기획부, 세계 테러조직 총람, 1994, pp. 149-215.

8) 동계서, 1994, pp. 322-337.

터 독립을 쟁취함은 물론 세르비아인들의 압제에 저항하여 민족적 권익은 쟁취코자 지역내 민족종교적 분쟁이 일어났다. 그중 크로아티아 혁명 형제단(HRB, HRVATSKO REVOLUCIONARNO BRATSTVO)은 세르비아인의 유고 정부 지배에 적개심을 품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의 반정부 저항 집단으로 그 뿌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재의 조직 형태는 50년대에 출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바. 스페인 바스크분리 주의 운동⁹⁾

바스크 조국해방(ETA, EUZKADI TA ASKA TASUNA)은 스페인 동북부 바스크 지방 및 프랑스 남부바스크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바스크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단체로서 스페인 전 지역과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조직규모는 100-200명, 기타 수많은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바스크족 해방과 독립 바스크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약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바스크 민족당」은 1894년에 창설되어 「프랑코」 총통치하에서 불법 단체로 존속해 오다가 파리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기도 했다. 그들은 스페인 전지역에 폭탄 테러의 공포를 조장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테러 대상으로 삼아 스페인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사. 타밀분리주의 운동

스리랑카 분리독립 단체인 소수 타밀족의 무장과격제단체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는 1983년 7월부터 북부 자프나서를 중심으로 타밀족 독립국가를 주장하며, 무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¹⁰⁾ 1996년 현재 테러 등으로 정부와 반군 5만명이 사망하였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9) 동계서, pp. 74-148.

10) 스리랑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1천 8백만명중 18%인 약 3백 20만명인 타밀족은 대부분 상할라족으로 구성된 정부에 협력, 평화공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 3개성의 일부 타밀족과 6천명의 무장세력이 주로 밀림에서 거주하면서 게릴라 전법으로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반군들이인도 남부의 타밀족과 영국등 해외에 산재한 13만명의 타밀족의 지원속에 자금과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동아일보, 1996년 8월 16일자).

Ⅲ. 海外勤務企業體 및 我國人에 對한 테러 實態

1. 海外勤務企業人에 對한 테러 要因

現在 韓國의 經濟發展은 눈부시게 發展하였고, 후발 개도국인 동남아시아, 中東 等 세계 65개국에 韓國企業體가 進出하여 자사 요원을 駐在시키고 있는바, 最近 폭탄테러 事件이 發生된 스리랑카 地域에는 75개 業體 7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現在 韓國企業은 아시아의 16개 開發途上國을 비롯 世界 各國에 進出해 있다.¹¹⁾ 最近 스리랑카 分離獨立團體인 타밀叛軍은 스리랑카에 對한 韓國의 經濟 協力斷折을 要求하며, 테러를 政行하였는바, 海外進出 韓國企業의 職員들이 現地 反政府 게릴라의 金품을 노린 폭력 단체에 의해 拉致되거나 犧牲될일은 있었지만 韓國企業을 테러의 標的으로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러면 과연 왜 그들은 테러를 감행하는지 그 테러要因은 첫째, 內的要因으로서 分爭地域의 政治經濟 社會的 要因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둘째, 外的要因으로서 北韓의 사주에 의한 고도의 戰略에 따라 자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紛爭地域의 政治, 經濟, 社會的 要因

대부분의 紛爭地域은 既存 政權과 叛軍간에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葛藤關係에 놓이게 되므로써 항상 既存 政權의 統治行爲에 制동을 걸고 또한 그들의 少数意見을 與論化하기 위해서는 自國에 進出한 企業에 對한 테러를 政行함으로써 既存政權의 發展에 制동을 걸고 나아가 分爭危險 地域이라는 것을 國際 與論化 함으로써 外國의 進出을 막음으로써 一石二鳥의 政治的 效果를 얻기위함인 것이다.

나. 北韓의 使噓에 의한 고도의 戰略

북한은 제 3국에서의 대남한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 예는 여러차례 있었다. 안전기획부에 의하면 북한의 특수 공작팀이 아시아의 한나라에서 국내기업인 5명을 납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사전에 봉쇄한 사실도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기부에 의하면 한국인 납치테러를 전담하는 북한의 특수공작팀은 국가 안전보위부 소속이며 1개조 4-5

11) 동아일보, 1996年 8月 17日字.

명으로 구성된 5개조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해외주적 유럽기업인들을 상대로 납치공작을 벌여왔다.¹²⁾

북한공작팀은 우리 기업인들의 신원사항, 숙박호텔 접촉인물 및 단골음식점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대북교역 및 합작 알선을 내세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강명도씨 귀순에 대한 보복으로 국가 안전보위부 지휘하에 1994년 8월 이후 한국의 대사급 이상 고위 인사납치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95년 7월 중국연변지역에서 목회활동중 북한에 납치된 안승연 목사 납치 사건¹³⁾을 비롯 중국연변 지역에서의 기아구름 박 병현 이사의 독침 피살사건등 우리 국민의 연변지역 여행시 안전문제를 우려케하고 있다.¹⁴⁾

한편, 1996년 10월 1일 러시아 블라디 보스트르크에서 살해된 최 덕근 영사 피살사건은 부검결과 북한 공작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⁵⁾

또한, 1996년 8월 14일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통신 사업장에서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소속 게릴라 2명에 의하여 수류탄 2발이 투척되었던 사건으로써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APEC지역에 관광객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⁶⁾

2. 海外 企業體 및 아국인에 대한 테러 事例

가. 外國企業體에 대한 테러 事例

海外 企業體에 對한 테러 行爲는 크게 企業人에 對한 拉致¹⁷⁾, 暗殺, 또는 企業體 建

12) 한국일보 1996년 1월 25일자.

13) 안 승연 목사는 1995년 7월 중국 연변지역에서 목회활동중 납치되어 아직 귀환되지 않고 있다.

14) 1996년 3월 20일 공노명 외무장관은 중국북경 조어대 국민관에서 전기침(錢基琛)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중국내 한인안전대책을 요청하였다.

15) 문화일보, 1996년 12월 6일자.

16) 1996년 11월 21일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지난해 해외로 나간 관광객은 3백 81만 9천명이며, 입국한 외국인은 3백 41만 8천명이다. APEC회원국과 나가고 들어오는 비율은 각각 83.4%, 85.9%이다.

17) 중앙일보 1996년 8월 17일자 브르셀 연합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유괴 및 납치 예방 전문 기관인 CRG에 의하면 과거 5년간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사건이 가장 빈번한 곳은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가 총 1768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아시아 지역 파키스탄은 864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고 필리핀은 231건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인도 74건 터키 22건 등의 순이었다.

物の 爆破, 放火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먼저, 企業人에 對한 테러 事例¹⁸⁾를 보면 터키주재 엘알항공 支配人 暗殺(80. 1. 12), 리비아 企業人 1名이 로마소재 자기집부근에서 暗殺된 事件(80. 4. 19), 스위스 네슬사의 과테말라 지사장 被拉(80. 6. 17), 美國實業人 1名이 마닐라 소재 YMCA의 자기 事務室에 들어가다 폭발사고로 인하여 중상(80. 9. 6), 신원미상의 무장괴한에 의하여 유대인 과리주재 여행사 職員被殺(80. 11. 25), 과테말라 주재 오스트리아 企業人 拉致(81. 2. 11), 무장괴한들에 의한 미석유회사 칼텍스 副社長 토마스 안텔슨 被拉(82. 2. 8), 左翼[신초네]로 人民解放運動團體는 저명한 온두라스 官吏 및 企業家 등 105名을 人質로 잡은채 商業建物の 事務室을 점거(82. 9. 17) ETA테러분자로 추정되는 2名の 괴한에 의해 렌타리아에서 企業을 경영하 는 순다곤잘레스를 살해한 事件(83. 10. 20),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企業體에 대한 테러의 事例를 보면 주영 쿠웨이트석유회사 事務室爆發 (80. 6. 1), 서독 駐在 貿易商社 점거(80. 6. 30), 프랑스 駐在 스위스 여행사 爆發 (80. 10. 12), 코르시카 解放民族戰線(NFLC)이 自身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이태리 觀光業所 爆發(81. 2. 13), 革命人民軍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그리스 駐在 서독 회사 爆發(81. 4. 24),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者團體(GIP)가 自身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英國 대처政府의 북아일랜드 政策에 대한 항의로 판단되는 이탈리아 로마駐在의 한 英國會社의 진열실의 爆發事件(81. 9. 23), 유대인 보호연맹(JDL)이 범행을 주장한 뉴욕 록펠러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美國駐在 이집트관광회사의 爆發(81. 10. 25), 國際共產主義者가 犯行을 주장한 美貿易會社爆發(82. 1. 20), ELA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아테네의 IBM사무실 爆破(82. 4. 26), 로마 포드자동차 會社(82. 6. 1), 그밖에 美國 企業에 對한 폭발물사건이 수십차례에 걸쳐 發生 하였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利害關係로 인하여 테러가 各國의 企業體를 對象으로 發生하고 있으며 점점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⁹⁾

나. 韓國企業體에 對한 테러 事例

韓國企業體를 對象으로 하는 테러 行爲는 크게 北韓에 의한 테러의 소수민족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 行爲로 區分할 수 있다.

18) 國際테러 事件情報資料(對象別), 國家安全企劃部, 1985. 4, pp. 79-103.

19) 白 永哲, “해의 근로기업체의 테러방지 및 위장침투 세력 방지책” 테러연구, 치안본부, 1987. 5, pp. 170-171.

먼저 北韓 및 少數民族 運動主義者에 의한 지난 반세기 동안 北韓은 韓國內의 政治, 社會的 情勢에 관련하여 對南戰術을 변화시켜 왔으며, 6.25戰爭의 실패로 南勞黨 계열과 그 동조세력이 백일하에 노출되어 大部分 소탕되었고, 또 공산치하의 南韓大衆이 겪은 체험으로 인하여 韓國의 반공태세가 오히려 공고해지자 地下黨 組織과 게릴라戰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殺人, 拉致, 爆破, 등의 테러리즘을 통하여 혼란의 절정기를 이용하여 테러리즘보다 한 단계높은 紛亂期로 方向 전환하여 왔다.

北韓의 對南테러 行爲을 보면 革命運動의 國際化에 따라 北韓이 직접 개입했거나, 아니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親北韓의 路線을 따르던가 北韓으로부터 人的, 物的인 支援을 받고 있는 테러 集團이 北韓의 지시에 따라 活動하고 있다. 또한 國際的 紛爭地域에 北韓이 고문단을 파견하거나 戰爭物資를 供與한 事例가 있다. 北韓은 韓國人을 포함한 外國人拉致만을 전문으로 하는 外國人 拉致課(組)를 설치 운용해오고 있다고 한다.²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알제리아, 이집트, 북예멘, 기네비소 등이 韓國人의 出入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1970년말부터 北韓은 무려 30여회에 걸쳐 韓國의 海外滯留者를 拉致하였고, 海外就業勤勞者들의 拉致를 企圖하였다.²¹⁾

그 實例를 보면 海外就業者, 간호원, 상사원 납치기도, 리비아탁구코치, 주불란서 코트라직원 등 15여회에 달하며 그밖에 해외유학생, 연수생, 연행자 납북을 시도한 바 최은희(78), 고상문(79), 정여섭(79), 국제자연보호연맹총회대표 이민재(78), UN여성회의 대표 박영혜(80) 등의 拉致를 實例로 들 수 있다.

그동안 北韓의 對南 工作樣相과 특징을 살펴보면 武裝 特定組의 小數精銳化 및 과격화, 위장수법의 高度化, 第 3 國 우회공작의 증가, 自體 工作體制의 整備, 強化 등을 發見 할 수 있다. 이러한 工作樣相은 특히 西歐地域에 國際的인 革命力量의 確保를 위한 浸透로서 國際的 革命支援勢力의 確保를 통하여 그들과 連帶性을 強化하여 그들의 基本目標인 韓半島 赤化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國際的인 支持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的인 國際政治潮流에 있어 西歐諸國의 共產主義國家들에 대한 外交的 西歐諸國들의 共產主義國家들에 대한 外交的態度的 變化를 利用하여 西歐諸國에 접근하여 國際的인 革命力量과의 連帶性을 強化하려고 하고 있다.²²⁾

두번째는 國際테러 集團에 의한 테러 可能性을 들 수 있다. 現在에도 테러 集團들은

20) 한국일보 1996년 1월 25일자.

21) 白永哲, “테러 行爲에 대한 國際協力的 問題” [對테러 研究], 治安本部 1983. 11, pp. 152-170.

22) 南基煥 “北韓의 西歐浸透活動” 外交安保研究院. 研究論文, (79-08, 1979), pp. 7-8.

복잡하게 연계관계를 맺어 적극적으로 活動하고 있어 世界的으로 國家의 主權을 유지시키고 國家發展을 이룩하기 위한 經濟的, 政治的 戰爭이 지속되는 한 테러의 可能性은 항상 常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게 世界的으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韓國은 테러의 온상과 같은 끊임없는 紛爭이 지속되는 地域으로 우리의 資本과 技術, 그리고 人力과 商品을 進出시키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海外韓國勞動企業이 國際테러 團體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점점증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國際테러 集團에 의한 拉致事件의 경우에는 테러 資金의 調達目的으로 恣行되는 수가 많다.

즉, 實例를 보면 필리핀 민다나오 地域의 마긴다나오 섬에서 아시아 開發銀行(ADB)의 財政授助로 進行되고 있는 道路工事의 감독을 하던 FEMCO(Fisher Engineer and Maintenance Company)소속 重機技術者 朴帶春氏가 필리핀 新人民軍(NPA)에 의한 拉致事件('78. 1. 18),²³⁾ 남광토건의 重裝備運轉士 李相玉의 민다나오의 코타바토에서의 被襲事件('78. 1. 26), 스페인領 西部사하라地域 西사하라 海岸에서 한국 모로코소마팜의 共同所有로 되어있는 般船 깎주비 2號가 폴사리오 게릴라²⁴⁾들에 의한 被襲(1980. 7), 이라크北部 와우크 자비타 道路上에서 정우개발 소속 문경희(운전사), 이명호(정비사)가 쿠르드 게릴라들에 의해 拉致²⁵⁾(1982. 4)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테러集團 또는 公認되지 않은 政治集團과 아무런 敵對關係가 없다 하더라도 그 테러의 표적이 되고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 루손섬 북방 일로코스 노르테州 라오악市 부근 建設現場에서 수십명의 무장 共產게릴라(NPA)들에게 拉致된 韓逸開發職員 朴鍾守, 鄭相基氏의 被拉 事件²⁶⁾(1986. 10. 22)으로 被拉57일만에 석방된 事件을 통해서 韓國海外勤勞者들이 테러團體들에 의해 受難을 받은 바가 있다.

23) 東亞日報, 1978年 1月 25日字.

24) [폴사리오]란 [사제리아.엘.하무라]와 [리오.데.오로]地域 人民解放戰線(Popular Front For Liberation of Sageria el Hamura and Rio de Oro)을 가리키는데 스페인 領 西部사하라 地域 원주민인 [사라우이]인들이 73년에 獨立鬪爭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한 政治團體이다. 洪斗承, "開放政策에 따른 海外테러의 萬能성과 그 對策", [對테러 研究Ⅱ], 治安本部, 1984. 5. p.201.

25) 東亞日報, 1982年 5月 24日字.

26) 東亞日報, 1986年 10月 25日字 2面.

90년이후 해외체류 이국인 대상 테러사건 일지 27)

일 자	사 건 내 용
90. 2. 17	필리핀 만달유용에서 현대건설 근로자 1명 피격 사망
3. 9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한국인 식당 방화 테러사건
91. 10. 16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인 여학생 2명 극우단체에 피습
92. 7. 21	우간다 캄팔라에서 한국인 회사원, 테러분자에 총격 피살
9. 21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부근에서 대우건설 근로자 4명 피랍
11. 15	필리핀 신인민군, 신성건설 근로자 억류 금품요구
11. 27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교민 소년 1명 극우단체에 피습
93. 1. 3	칠레 산티아고에서 교민 1명, 테러분자의 총격으로 사망
2. 4	이집트 회교도들, 한국인 관광버스에 소이탄 투척
94. 6. 23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북한공작원, 이진상교수 납치기도
8. 27	필리핀 회교단체, 신성건설 근로자들을 일시 억류
10. 12	알제리에서(주)대우 간부, 과격회교단체에 총격 피살
10. 13	필리핀 민다나오 회교반군, 재차 신성건설 공사현장 점거
95. 3. 18	대만 타이페이 주재 우리 외교관 피습
7. 9	중국 연길시에서 안승운 목사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
7. 17	필리핀 회교반군 위협으로 신성건설, 공사 중단 철수
10. 14	모스크바에서 현대전자 연수단 29명이 피란에 피랍
10. 16	오지리 극우파, 교민 의사에 편지 폭탄테러 기도
12. 7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우리 총영사관 행정차량 총격 피습

IV. 테러 防止策

향후, 海外勤勞企業體 및 근로자들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는 정부 및 기업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안전 확보대책을

27)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 정세」 1996, p. 11.

강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과 기업차원으로 구분하여 방지책을 논의해 보고자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으로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의 테러 정보수집 및 전파 계몽을하여야 한다. 海外勤勞企業體 및 海外滯留勤勞者들에 대한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勤勞者들이 체류하는 國家의 社會, 文化的 背景 및 政治的 狀況 등에 對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國家를 무대로 活動하고 있는 테러團體의 性格을 분석함과 동시에 國際的인 테러團體들의 動向을 추적하는 機關과 연계를 맺어 항상 그 活動의 추이를 감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를 각 企業體 및 勤勞者에게 전달하고 그 企業體別 對테러 防止策을 수립하게 하고 教育을 통하여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줌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國際테러에 대처하는데 있어 情報의 수집이야말로 유일한 최대의 과제가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豫防對策을 위해서나 事後對策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國家的인 次元에서 財政的 뒷받침을 통한 國際的 테러團體의 動向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企業體別, 勤勞者別로 對테러 教育을 強化하여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北韓에 의한 테러 防止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인 납치 테러를 전담하는 특수 공작팀을 국가안전 보위부 소속으로 운영 1996년 7월부터 해외주재 유럽 기업들을 상대로 납치 공작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北韓은 “지도핵심”이라는 새로운 組織의 對南工作員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 組織은 過去의 무장공비나 고정 간첩과는 달리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反政府 勢力 등을 콘크리이트로 굳어지게 하는 시멘트戰術의 役割을 담당하며, 정세를 獨自的으로 판단하여 중심 고리作戰에 의한 要人暗殺, 施設爆破, 등 각종 테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幹部級 工作員을 말한다. 따라서 北韓은 國內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國際테러組織을 조종, 사주하여 國家 指導者와 主要 人士에 대한 테러공격, 國家主要機關에 대한 爆破, 韓國駐在 外交官, 外國企業人에 대한 人質, 拉致, 駐韓美軍과 軍事施設에 대한 테러 공격, 韓國의 海外勤勞企業體에 대한 공산테러집단의 위협 및 勤勞者 拉致 등을 예상할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地域別 특수성을 감안하여 南北韓과 同時에 外交關係를 동시에 갖고 있는

28) 한국일보 1996. 1. 25.

國家와 北韓과 外交關係가 있더라도 南韓이 그 國家를 여행할 수 있는 國家에서는 北韓의 테러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活動을 分析하고, 勤勞者나 企業體幹部들에게 僞裝浸透勢力을 防止하기 위하여 安保教育과 테러발생시 행동방책을 轉과하고 계몽하여야 하겠다.

기업차원에서는 첫째, 기업자체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 주체원의 안전 대책 중요성에 관한 기업의 인식을 높여야 하고 아직도 부임하기 직전의 연수와 안전 지침서 배부 등이 고작이며, 그나마 기업의 대부분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치안 상태가 좋지않은 나라에서는 구미기업들처럼 보디가드나 경호요원을 고용하거나 안전담당 임원과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기업체의 요원에게 경호경비훈련은 시켜야 한다.

둘째, 각 기업의 안전 비용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 안전 대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최대 이유는 안전비용이 이익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유괴사건 등이 발생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수많은 사람이 不安에 빠뜨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관계와 국민감정에도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평소 안전대책에 금전과 노력은 투자하는 측이 결국 사건발생으로 인한 고비용을 감소 시킬 것이다.

셋째, 해외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안전 확보는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에따른 경비는 해외 진출에 동반하는 코스트로서 당연히 경영 예산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사원의 생명을 어느 정도 소중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로 기업원리가 도마에 오른다. 해외 근무자의 안전 대책은 한 기업의 틀을 넘는 산업계 전체의 긴급과제 이기도 하다.²⁹⁾

넷째, 기업의 안전대책 상담과 정보 교환 긴급시 지원 등은 실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겠다. 일본은 지난 1996. 8. 10 멕시코에서 유괴됐던 산요(三洋)전기 미국 자회사 「산요 비디오, 컴퍼넌츠」 곤노, 마모루(金野衛, 56)사장이 200만불의 몸값을 치루고 석방되므로써 430여개 해외진출 기업들로 「일본재외 기업협회」를 발족시키고³⁰⁾ 협회측은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해외정세를 수집 회원사에 전파한다. 개별 기업도 안전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 전자 메일을 통해 최신 해외 안전 정보를 수시로

29) 1996년 8월 22일자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활동중인 일본기업은 1만 1천여개 업체로서 해외 생산 비율은 전체의 10%에 이른다. 엔고현상에 따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30) 문화일보 1996년 8월 22일자.

계시하는 등 경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고할 사항이라 하겠다.

V. 結 論

오늘날 테러리즘은 원인과 동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手段이 情報化, 科學化되었고 방법이 隱密化, 暴惡化되어 보다 大規模的으로 확산될 전망이 보이나 피해 당사국은 逆테러 對策에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은 테러 分子에게 機先을 빼앗긴채 소 방관 노릇이 고작인 상태에 있다.

특히 테러團體들로부터 그들이 活動하는데 있어 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企業테러가 급증하고 있는데, 1970年代 以後 韓國人들은 6大洲 5大洋의 世界 도처에 進出하여, 貿易, 어로작업과 건설 공사장에서 활약해오는 동안에 종종 人質金을 노린 테러犯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테러犯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테러 때문에 韓國人의 海外進出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한국의 國勢가 擴大됨에 따라 海外進出 韓國人數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勤勞者와 그를 고용하는 企業體도 스스로 獨自的인 대비를 하여야겠지만 國家도 항상 在外韓國人의 生命, 財産과 安全을 테러犯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對備策을 갖고 있어야 한다. 國內 또는 海外의 테러에 對備하는 政府關係부처의 對테러對策 조정기구의 設置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韓國은 北韓과 理念的으로 대치하고 있는 狀況에서 북한의 對南테러행적 중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5年 이후를 보면 國家統治機構를 말살하기 위한 大統領 危害 기도 사건 7회를 비롯하여 각종 拉致事件이 500여회에 이른다.

北韓은 韓國이 계속적인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으로 安定을 다져 나가는 것을 가장 불안하게 여기며 또한 한국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南韓의 역량을 파괴, 분산시켜 적화통일의 決定的時期를 앞당기느냐“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 의한 테러 可能性은 테러分子의 國籍에 따라 外部로부터의 테러와 內部로부터의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는데 外部로부터의 테러는 北韓의 특수요원에 의한 직접 對南테러 北韓 공작원에 의한 海外에서의 테러, 在外 反韓人士나 포섭된 교포를 대

理人으로 내세운 테러 國際테러 團體를 매수하거나 사주한 테러 國際테러 團體의 自體的인 테러가 萬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海外테러의 防止를 위해서 國家의 政策的의 支援 企業體自體에 있어서도 對테러를 위한 保安對策立案 및 勤勞者에 대한 敎育으로 海外企業體의 財産 및 勤勞者의 生命을 위협하는 要所로부터 安全하게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도처에 소수민족에 의한 대정부 투쟁이 존재하는 한 아국의 해외진출 기업도 그들 내부의 이해관계에 편승 아국의 기업체 요원에 대한 테러가능성에 대하여 대처하여야 하겠다.

ABSTRACT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By Choi, Yoon Soo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